

산업기술시험원, 태양광 시험기관 지정

기술서비스기업 TuV SuD Korea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태양광 분야의 외부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했다고 4월15일 발표했다.



이에 따라 국내 태양광기업들은 태양광 모듈 인증을 받고자 해외로 샘플을 보내는 등 번거로운 과정 없이 국내에서 간단하게 인증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됐다.

인증시험 비용 절감, 납기 단축, 해외수출 활성화 등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된다.

산업기술시험원의 독립시험기관 역할은 1년간 유지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갱신이 가능하다.

TuV SuD Korea가 주관하는 <TUV SUD 마크 인증>은 태양광 모듈 유럽수출을 위해 필수적인 국제인증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.

TuV SuD Korea 관계자는 “독립시험기관 지정으로 국내 태양광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확대되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<화학저널 2013/04/16>